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하반기 시민학교 특강 [상생 공존]

5강 <2017년 이후의 젠더 이슈와 젠더 문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 남녀의 평화적 공존>

권윤지

2024.11.27

강연서문

저는 안티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누구보다 페미니즘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티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이유는, 제가 쓰는 글과 제가 방송 등에서 말로서 주장하는 바들이 남성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제가 대단히 페미니즘적인 사람이었던 덕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굳이 부정했던 이유는, 여론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저야말로 가장 페미니즘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현안들이 부정될 것 같았기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페미니즘적일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수줍은 얼굴에 한껏 꾸민 젊은 여자가, 솜뭉치도 노메이크업도 아닌 평범한 여자가 왜 페미니즘적일까요?

저는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에 열두 시간씩 공부를 했고, 잠도 줄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본 제 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여자를 싫어한다고.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찬바람이 불고 매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매력 없음에 대한 기준이 틀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매력없는 거라면 나는 차라리 매력없는 여자가 되겠어.”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명품을 싫어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기고, 뭇 아줌마들이 다 똑같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제게는 수수께끼같았습니다. 대체 저게 뭐길래? 마치 저것은 어떤 세속적인 속성들의 상징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쯤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을 표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저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는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삼 일에 한 번씩 패 주어야 한다는 말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낳기 싫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공원을 산책하다가 옆에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지나가자 아버지가 제게 ‘너도 나중에 저만한 아이를 데리고 이 곳에 오겠지’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신경질적이고 확고한 말투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와 일은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거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할 거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등록금이 비싼 특목중고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체능 전공으로 나왔고, 동창생의 80퍼센트 이상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집 잘 가기 위해 다닌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동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잣집 아이들이었고, 당연하다는 듯 브랜드 커피, 옷, 가방, 구두 등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사치일 수 있는 소비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외에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그 동문들은, 돈을 먹는 기계 같았습니다. 저는 늘 계산했습니다. 나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것을 성인이 되어 전부 변제해야 하며, 인생은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게 투자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관계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주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남자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으며,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잘 생긴 남자에 열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치를 죄악시했고, 결혼에 대한 속물적 사고, 특히 상향혼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거부했으며, 여성들의 사회는 뒷담화와 감정적 대화로 점철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환멸을 가졌습니다. 아마 작금의 젊은 남성들이 제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해서 주로 비판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의존성과 상향혼 경향,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따지는 성향 그리고 문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어쩔 이상적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할 법한 그 남성들이 모두 안티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 어린 생각들과 짐짓 거친 모습들이 페미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는 철학자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의 유서깊은 형태는, 남성과 동등한,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 평범한 다수의 여성과는 다른 여성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 보통 여성들보다 더 좋은 체력과 정신력, 이성적 사고, 삶에 있어서 거의 독재적일 만큼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좋은 페미니스트는 강인하고 철벽 같고 대단히 이성적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페미니스트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안티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최근 약 6-7년간의 다소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페미니즘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했던 것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됐던 혐오 정치, 혐오 문화입니다. 그런 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안티페미니스트라고 규정되는 것은 진보주의자로서, 아니 인권주의자로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마치 사상검증처럼,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아니라고도, 맞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첨예한 남녀 갈등 속에서, 제게 그렇게 짐짓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이는 제가 흑여라도, 여성이

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곳곳에 자리잡아 남성혐오 언어를 양산하는 바로 그 페미니즘에 혹여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찬동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에서 제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똑똑한 여성으로서 소녀시절, 초기 성인기를 살아오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페미니즘을 터득하고, 페미니즘에 대해 폭넓은 사고를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제게 어떤 검증 투의 질문을 하는 이들은 언제든 저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쩔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별도의 비하 용어나 부정적인 정서 또는 비아냥거리는 어조의 미사여구 없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부르투스 너마저'하고 저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지지층으로부터 상당 부분 버림받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으나 슬프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건대 버려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이 저를 버림으로써 이 사회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려던 자신들 안의 열정도 동시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짱돌을 던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이 보는 세계의 부조리를 낱알이 윗치어 외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그런 행동은 어떤 댓가를 바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와 국가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 법을 가슴으로 배운, 정서의 언어로 배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80년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사회참여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맹인입니다. 그런 눈 먼 세대, 원죄의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우리 세대에서, 지난 선거 때 제가 제기한 정치적 문제의식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옛 운동권과는 정말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그들과 같은 정도, 어쩌면 좀 더 진보된 공감 능력으로 제게 힘을 주고 저의 투쟁에 함께하려던 분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미 너무 무거운, 검찰과 언론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은 그들에게 소리없이 외쳐댔습니다. 좌파를, 그 진영 사람을 멀리하라구요. 지금 우리는, 그 벽이 더 크게, 더더 크게, 잣과 콩나무처럼 크게 자라 그늘을 드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시원하고 그런대로 괜찮다는 사람, 나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것이 불의한 체제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게 하는 힘입니다. 정파 갈등에 대해서 한 쪽 편을 편파적으로 들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힘, 내가 나로서 오롯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저 쪽 권력자들에게 강탈당한 상태로 수동적 사회구성원으로 여론형성, 사회문화형성, 의사결정의 하위구조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임에도 그 누구보다 유아독존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된 자유, 환영뿐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숭고한 체제라고 굳게 믿으며, 강아지 간식에 비견될 만큼 굴욕적이고 통제적인,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통 속의 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 속의 사물들, 이념들은 실재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 가상의 것들이 실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진영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고 자부하지만, 보란 듯이 우리를 겁박해 오는 상대 진영, 그리고 진영 구분 딱히 없이 '합리적인'정치비평에 의거한 정치참여를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작금의 젊은 세대 역시도 매우 암울할 정도로 통제된 사고 속에서

기득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거기에 더해 폐쇄적이기까지 해서 얼마나 어떻게 부패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기득권이 가장 반기는 이들은 바로 무기력한 시민입니다. 무기력하면서도 무기력을 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 망각 속에 살며 자신은 결코 무기력한 시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시민입니다. 작금의 청년들은 일단 부동산 값이 너무 높고 취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삶의 노예가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 사회의 질서에 어느 정도는 분노하되, 그것을 말 그대로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조직적 결사 투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짊어진 짐, 자신들의 난관 속에서 빛나는 행복을 발견하며, 그것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맛'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작금의 청년들은, 아주 작은 즐거움만 주면 인생을 다 바칠 사람들입니다. 사상 때문에 타협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기득권이 원하는 피지배자상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제 설명을 그저 변명, 또는 불쾌한 반란처럼 여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소통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들을 원리원칙적으로 따르기만 한다고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보는 세상을 새로이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민주적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간의 잡담 한 마디도 정치적 함의를 크게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일상 생활, 생각, 대화, 느낌 등등이 순수한 정치적 에너지로 변환될 가능성을 늘 갖고 있지만, 그것들 안에 진정한 자율성이 없다면 그 모든 에너지는 더 큰 포식자처럼 언제든 그것을 훔쳐 자신들의 자산으로 삼으려 하는 세력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서 저는 요즘, 우리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대단히 암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 그리고 실질적이며 비선인 검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누구와도 편히 대화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들에게 내치의 다른 뜻은 분열 획책인가 봅니다. 저들이 온 나라 전체에 뻗친 마수는 너무나 많은 희생양을 낳습니다. 권력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상들을 다루는 강연서문에도 파고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니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 저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젠더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니, 저를 크게는 젠더 문제, 그리고 좁게는 성 사건, 그 중에서도 가짜 미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취재작가가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관점입니다만, 저 스스로는 한 번도, 저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저를 정체화합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은, 진영에 대한, 각 진영의 의미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또 '빨갱이'나 '간첩'처럼 말을 꺼내는 것조차 수상한 눈빛으로 금기시되는 그런 말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고, 우리 시대에 맞는 담론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저를 정의내립니다.

저는 새로운 담론을 찾습니다. 담론은 개별적인 현상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맥을 잡아내고, 그 맥에다가 이미 존재하는 여러 이론들의 통찰을 접합하여, 그 담론이 있는 시공간에 가장 적합한 '시대 설명'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끔 하는 힘입니다. 담론은 일종의 집단적 의사소통

의 지평에서 쓰이는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능히 정치적 역량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듯, 담론으로 사유하는 여러 이들이 모이면 그들은 정치적 힘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것이 담론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새롭게 도래한 시대에 알맞은 언어를 찾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미투 광풍을, 적절한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신세대의 실수라고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언어가 생각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구호가 되고, 그 구호 속에 비로소 나와 너, 대중들의 감정이 담기며 우리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로,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구호를 만들어 외친다면 그것은 참 파괴적인 일입니다.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무한한 가치와 역사적 동력을 생산하지만, 역사적 공간의 허공을 향한 그 말이 엉뚱한 개인을, 무엇보다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사이를 향해게 된다면 진보진영은 그 즉시 멸망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진보가 세 명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내고, 정치권 곳곳에 포진하며, 기성정치의 명실상부한 한 축을 담당하는 데까지 성장해온 데에는 담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념적 의미의 좌파. 우파가 아니라, 독재 속에서, 또 고속으로 발전하는 나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산업, 노동, 가정생활 등과 관련된 사회적 병리현상, 이에 따른 개인의 소외현상에 대한 대단히 따뜻한 인권주의자의 시선을 토대로 진정 한국적인 진보정치를 창조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라는 작은 사람이 그러한 진보정치의 유산에 날개 끝이라도 비벼볼 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지금처럼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린날 티브이를 보시며 쏟아놓던 아버지의 분노 그 끝을 쫓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치는, 선한 분노는, 우리나라의 풍토 속에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린 날의 경험들 속에서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지'에 대한 추상적 인식, 그리고 정의감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나의 정의감에 상처를 내는 이와 나의 정의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를 구별하며 자연스럽게 개인 안에서 배태되는 것입니다.

이 강연서문을 잘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연 주제는 <2017년 이후의 젠더 이슈와 젠더 문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 남녀의 평화적 공존>으로, 강연서문을 통해 열린 저와 청중 여러분 사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겪은 시련을 직시하고, 뼈아픈 직시를 진정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교두보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옆의 이웃, 배우자, 가족을 따뜻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